

스마트폰 요금할인제 쓰니 훨씬 이익이네

단통법 시행으로 20% 할인

단말기 지원금보다 2배 혜택

정부·통신사 적극 홍보 필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단말기 구입 지원금의 한도가 제한되면서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20%요금할인(24개월)' 혜택이 효율적이지만 외면받고 있다.

기존 사용자들도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정부와 통신사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9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최근 시행된 '20% 요금할인제'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신규로 구입, 개통하는 과정에서 기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매달 20%의 통신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전문가들은 통신요금 할인제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예컨대, 소비자는 이동통신사 대리점·판매점을 방문해 새 휴대폰을 구매할 때

20% 요금할인제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제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올해 4월에는 요금할인율이 12%에서 20%로 상향됐다.

단말기 지원금과 요금할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휴대폰을 바꿀 예정이라면 지원금보다 요금할인이 장기적으로 이익이 큰 만큼 할인제도에 관심을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 동구 총창로 이동통신 대리점 등 업계 관계자들도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노트 5와 갤럭시6엣지 플러스 등 신상 제품들을 구매하면서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20% 요금할인을 받는 게 더 이익"이라고 입을 모은다.

갤럭시노트 5는 단말기 가격이 89만9000원 상당으로 월정액 5만9900원 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단말기 지원금이 13만5000원 ~ 17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20% 요금할인을 선택하면 24개월간 31만7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10만원대 요금제는 지원금이 24만5000원 ~ 28만

■ 단말기 지원금 vs 20%요금할인 (월 5만9900원 요금제 24개월 기준)

□ 갤럭시 노트 5(출고가 89만9000원)



□ 루나(출고가 49만9900원)



5000원으로, 요금할인을 선택하면 두 배에 달하는 52만8000원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출고가 44만9900원의 보급형 모델로 인기를 끌고 있는 '루나'도 월정액 요금제 2만9900원에서 지원금은 10만원 상당이지만, 20% 요금할인을 받으면 16만원까지 할인혜택이 돌아간다. 5만9900원 요금제는 2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대신에 요금할인은 32만원이다.

또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통신사

이용자들도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고폰 사용자나 단통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이전 개통한 휴대폰으로 약정기간이 지났어도 사용하던 휴대폰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동통신 3사 20% 요금할인 신청 전화번호는 ▲SK텔레콤 080-8960-114 ▲KT 080-2320-114 ▲LG유플러스 080-8500-130 등이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011 아니면 안돼” 2G 가입자 140만명

“쓰던 번호 지속 정책 필요”

않는다.

'010'이 아닌 휴대전화 번호를 유지하기 위해 아직도 2세대(2G) 통신 서비스를 사용하는 가입자가 14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정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011, 016, 017 등 010이 아닌 번호를 사용하는 가입자는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2.5%에 달하는 139만1662명이었다.

이 중 SK텔레콤 가입자는 107만4217명, LG유플러스 가입자는 31만7445명이었다. KT는 2G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정부 방침에 따라 2013년 말 이후 기존 2G 서비스 가입자가 3G나 4G(LTE)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그동안 보유하고 있는 '010'이 아닌 번호를 포기하고 010으로 시작하는 새 번호를 발급받아야 했다.

010이 아닌 번호를 유지하려는 일부 가입자들은 불면해도 2G 서비스를 계속 사용하는 쪽을 선택했다.

정병헌 의원은 이에 대해 "2G 서비스 종료 시점까지 010이 아닌 번호 가입자들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3G나 LTE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이용자 친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콘텐츠 기업 이용자 보호지침 준수 여부 조사

한국콘텐츠진흥원위원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백운재·권분위)가 콘텐츠 이용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 준수 여부 모니터링'을 오는 10월 한 달간 실시한다.

모니터링은 콘텐츠사업자가 문화부가 마련한 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 수준의 약관을 준수하도록 유도, 이용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진행돼 왔다. 올해는 게임콘텐츠 등 부문에서 2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콘분위는 모니터링을 통해 ▲과요금

환급 ▲정약철회 ▲계약해제해지 ▲자피해보상 이용자보호 ▲콘텐츠분쟁 해결 등 9개 항목 25개 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를 조사해 1차 결과를 11월 개별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콘분위는 조사대상 업체들에게 모니터링의 취지와 내용, 절차를 설명하는 사전 교육을 오는 24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대한번호사협회 14층 대강당에서 실시한다. 참가 희망업체는 오는 17일까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02-2016-4109)으로 신청하면 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우주에서 가장 오래 산 사나이

러시아 파달카, 879일 세계기록

1998년부터 5차례 우주비행

12일 우주정거장서 지구 귀환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머무르고 있는 러시아 우주인 겐나디 파달카(57·사진)가 우주에 생애 통산 879일 체류하는 세계 기록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파달카 등 ISS의 제44회차 임무에 참가한 우주인 9명은 9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항공우주국(NASA) TV 채널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된 기자회견을 통해 ISS의 운영 상황과 향후 일정을 밝혔다.

ISS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유인 우주정거장들 중 9번째로, 2000년 11월 2일부터 지금까지 사람이 계속 타고 있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ISS는 최저 330km, 최고 435km 사이의 고도를 유지하며 하루에 15.5차례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 현재 ISS에서는 미국의 스콧 켈리, 러시아의 겐나디 파달카 등 우주인 9명이 각종 과학 실험과 로봇 성능 테스트를 하고 있다.

파달카는 12일께 모겐센과 아임베르프와 함께 소유스 TMA-16M 우주선을 타고 지

구에 착륙할 예정이며, 지구 귀환을 준비하기 위해 6일 ISS의 지휘권을 미국의 켈리에게 인계했다.

만약 모든 것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파달카는 지구로 돌아갈 때까지 생애 통산 879일 우주비행을 하게 된다.

그는 1998년 미르 우주정거장 수리 등을 위해 처음 우주비행을 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5차례 우주비행 임무에 참여했다.

파달카 이전의 생애 통산 우주비행 최다 시간 기록은 러시아의 세르게이 크리칼레프가 6차례 임무에 걸쳐 세운 803.4일이었으며, 파달카는 이 기록을 올해 6월말에 깨뜨렸다.

／연합뉴스



스팸 알람 '올레 인터넷전화 D1' 출시

KT가 깨끗한 통화품질과 스팸 알람 기능을 제공하는 '올레 인터넷전화 D1'을 출시했다. 올레 인터넷전화 D1은 '후후 스팸정보 서비스'를 적용, 전화가 왔을 때 스팸 및 발신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기능은 현재 국내 인터넷전화 전용 단말기 중 D1에서만 유일하게 제공된다.

KT가 깨끗한 통화품질과 스팸 알람 기능을 제공하는 '올레 인터넷전화 D1'을 출시했다. 올레 인터넷전화 D1은 '후후 스팸정보 서비스'를 적용, 전화가 왔을 때 스팸 및 발신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기능은 현재 국내 인터넷전화 전용 단말기 중 D1에서만 유일하게 제공된다.

〈KT제공〉

MIG(Made In Gwangju) APP

스쳐 지나간 인연 만나고 싶다면...하트를 날려라



와이디온라인 '웃깃'



와이디온라인(대표 신상철)이 개발한 '웃깃'은 버스나 지하철, 학교, 커피숍 등 같은 공간을 스쳐 지나간 인연을 연결해주는 무료 애플리케이션이다.

자주 가는 카페나 음식점 등에 '웃깃'을 남겨 놓으면, 웃깃만의 독자적인 매칭 알고리즘이 당신과 자주 스치는 인연을 찾아주는 '기특한' 앱(APP)이다. 같은 공간에 몇 번이나 스쳐 지나갔는지 확인한다는 것으로, 특별한 인연을 원하는 싱글들에게 더없이 좋은 앱이라고 할 수 있겠다.

웃깃을 스친 사람들 중 호감을 가진 사람에게 '하트'를 보내 서로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누가 하트를 보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서로 하트를 보냈다면 대화방으로 초대되는 방식이다.

또 웃깃은 256bit로 정보를 암호화한 뒤 저장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공개하는 정보 이외에 어떤 정보도 다른 사용자와 공유하지 않아 안심할 수 있다.

와이디온라인은 광주시 동구 호남동에 위치해 있으며,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산하 광주 스마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센터의 지원을 받고 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7층 상가 건물 매매 <북구 우산동 구호전 사거리>



- ✓ 1층 (커피숍 입점완료)
- ✓ 2~5층 (사우나, 주택)
- ✓ 6~7층 (설계사, 건설사)

월수익 **950만**
사우나 직접 운영시 1,800만

매가 **14억 5천** (보 2억, 용 6억)

010-7384-7800 / 010-6670-9800